즉시 배포용: 2019년 9월 1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연방 정부가 제안한 성소수자(LGBTQ)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허가하는 규칙 변경에 뉴욕이 반대한다고 발표

주정부 기관은 미국 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의 연방 계약자에 대한 "종교적 예외사항" 확장 제안에 반대하는 공개 의견 제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연방 정부가 제안한 규칙 변경에 대한 반대를 발표했습니다. 이 규칙은 연방 계약자의 "종교적 예외사항"에 대한 정의를 광범위하게 확장하고 성별,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또는 표현에 기반한 차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미국 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가 제안한 규칙은 성소수자(LGBTQ)와 다른 근로자에게 매우 중요한 직장 보호를 박탈함으로써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뉴욕 인권국(New York Division of Human Rights)과 뉴욕주 노동부(New York Department of Labor)는 제안된 규칙 변경에 반대하는 공개 의견을 제출하는 데 합류했습니다. 이 공개 의견은 연방 차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뉴욕주의 고용주들은 근로자가 성소수자(LGBTQ)라는 이유 또는 주 인권법(Human Rights Law)에 따라 보호되는 다른 범주로 차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Trump 행정부는 성소수자(LGBTQ) 지역사회가 힘겹게 싸워 얻은 권리와 보호를 계속 축소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되풀이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제안된 규칙은 연방 계약자에게 차별할 수 있는 평범하고 단순한 허가를 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뉴욕 주민에 대한 동등한 보호라는 가치와 모순되기 때문에, 우리는 맞서 싸울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소수자(LGBTQ) 권리 운동의 발상지로서, 우리는 성소수자(LGBTQ) 지역사회와 함께 차별과 증오에 대항합니다. 뉴욕주는 성소수자(LGBTQ)의 권리와 보호를 위해 계속해서 투쟁할 것입니다. 성소수자(LGBTQ) 개인에 대한 직장 내 차별을 허용하는 연방 정부의 제안은 이해할 수 없으며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소수자(LGBTQ)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우리를 분열시키려 위협하는 이들에 맞서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2019년 8월 15일, 미국 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는 연방 정부 계약에서 동등한 고용 기회를 관리하는 규칙에 대한 제안된 변경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제안된 변경 사항은 연방 정부 계약을 받는 종교 단체에 대한 적은 예외사항을 크게 확장하고

광범위한 범위의 연방 계약자들이 특정 종교적 신념이나 교리를 준수하는 고용 조건을 쉽게 조건화할 수 있게 합니다. 심지어 연방 계약자가 종교 기관에 의해 운영되거나 감독받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 제안된 규칙은 Obama 정부가 연방 계약자들이 성소수자(LGBTQ) 근로자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마련한 보호 조치를 되돌려 놓을 것이고, 수백만 명의 성소수자(LGBTQ), 여성, 종교 소수자, 유색인들이 차별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제안된 규칙의 종교적 예외사항은 뉴욕의 차별방지법과 전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 규칙은 연방 정부와 뉴욕주 모두와 계약한 고용주들에게 혼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뉴욕주 인권국(Division of Human Rights) 커미셔너 Angela Fernandez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방 계약자에 대한 종교적 예외사항을 불필요하게 확장하는 제안된 규칙은 성소수자 및 기타 취약한 인구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연방 정부와 관계없이, 우리 부서는 불법적으로 고용을 거부하거나 보호 계층이 적용되는 개인을 차별하는 모든 고용주에 대해 인권법을 계속 시행할 것입니다."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의 Roberta Reardon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방 정부는 고용주가 어떠한 이유로도 직원을 차별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을 확장해서는 안 됩니다. 뉴욕 주 노동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는 모든 뉴욕 시민들이 안전하고 차별이 없는 업무 환경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행동은 뉴욕 성소수자(LGBTQ) 지역사회에 대한 보호 및 평등을 강화하려는 Cuomo 주지사의 최근의 노력입니다. 지난 8월, 주지사는 연방 정부가 제안한 성전환자 및 성별 비순응자에 대한 의료 보호 후퇴에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인권국(Division of Human Rights), 아동 및 가족 서비스국(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의 다기관 반대를 발표했습니다. 이 때 연방 정부에 성전환자 및 성별 비순응자를 위한 차별 보호를 약화하고 건강보험 개혁법(Affordable Care Act)을 준수해야 하는 보험 유형을 제한하는 미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의 이 제안을 폐기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지난 6월, 주지사는 형사 소송에서 "동성애자 및 성전환자 패닉" 방어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지난 1월에 Cuomo 주지사는 성 정체성이나 표현에 근거한 고용주, 교육 기관, 집주인, 채권자 및 기타 개인의 차별을 금지하는 획기적인 법인 성별 표현 차별 금지법(Gender Expression Non-Discrimination Act)에 서명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